

## 멩감본풀이

삼멩감(三冥官) 하늘님은, 천왕(天皇)은 열두 멩감(十二 冥官). 지왕(地皇)여럿 멩감(冥官). 인왕(人皇) 아홉 멩감(九冥官), 동(東)이 청멩감(靑冥官), 서(西)이 백멩감(白冥官), 남(南)이 적멩감(赤冥官), 북(北)이 흑멩감(黑冥官), 중앙(中央) 황신멩감(黃神冥官), 산으로 산신멩감(山神冥官), 물로 요왕멩감(龍王冥官), 배로 선왕멩감(船王冥官), 책 보는 집인 책불멩감(冊佛冥官), 삼상할망 집인 불도멩감(佛道冥官), 농사 하영 짓는 집인 세경멩감, 우리 ㄱ추룩<sup>1)</sup> 텅기는 집인 당주멩감(堂主冥官) 경 헨. 일흔으덱 도 멩감(冥官)이엔 허고.

멩감본(冥官本)은,

옛날 옛적에 주년국 스만이가 살앗인다.

어렸을 적 조실부모를 헤여서 살단. 고생고생 일천 고생 다 허연. 이제 춤실로 거리 개똥 줍다시피<sup>2)</sup> 허연 살단. 이제 스만이 안부인을 만난 살젠 허난. 애긴 보릿ㄱ루, 밀ㄱ루 애기덜은 하영 나고. 옥은<sup>3)</sup> 애긴 옷 줍서, 밥 줍서. 두린<sup>4)</sup> 애긴 젓 줍서. 경 허연 울고. 경 허영 살 수가 엇어 가가 난.

이젠, 흐를 날은 스만이 안부인이 머릴 막 하영 질랏단<sup>5)</sup> 그 머리를 끌 영 주명

“이거 애기들 배고판 살아지쿠가. 장에 간 무시거 쓸이라도 곡식(穀食), 식량이라도 반양<sup>6)</sup> 읍서. 이 머리, 강 풀양<sup>7)</sup> 반양 읍서.”

허난. 그 머리 들린 간 보난. 이 장, 저 장 텅기단 보난. 젊은 청년이 막 연설을 허는다. 이 총 하나만 잇이면은 할 일도 나고, 살을 도리<sup>8)</sup>가 나고. 이 총 하나만 잇이면 먹을 연도 나고, 입을 연도 나고 헌덴, 하도하도 선전을 헛이난. 스만이는 그 선전허는 거에 그냥 허연. 얼마뻬? 허난. 아니. 저, 머리부떠 간 풀안. 머리부떠 풀아뻬. 그 돈 들렁 텅기단. 그 총 선전

---

1) ㄱ추룩: 같이. 처럼.

2) 춤실로 거리 개똥 줍다시피: 매우 가난하게 살았다는 뜻의 표현.

3) 옥은: 성장한.

4) 두린: 어린.

5) 질랏단: 길렀다가.

6) 반양: 받아서.

7) 풀양: 팔아서.

8) 살을 도리: 살 도리.

헛이난 그디 간 사네

“얼마펜?”

허난.

“돈 석 냥이엔.”

허난. 머리 석 냥에 풀안. 쌀 받아오렌<sup>9)</sup> 현 일을 간, 석 냥에, 간 총을  
오꼴 사분 거라게. 경 사부난. 집인 들어오난 스만이 각신

“아이고, 이 어른아, 쌀은 어느거짜? 애기덜은 어느 때 울고, 혼저 당신  
오민 아이들 밥 헛 주젠 헛덴.”

허난. 총을 오고생이<sup>10)</sup> 들렁 온 거라.

“아이고, 쌀은 아니 받아 오고, 이건 무시거짜?”

허난. 이것만 잇이민 쌀도 나고, 밥도 나고, 돈도 나고, 별거 다 난덴 헛  
헛 허난. 원, 어이척량<sup>11)</sup> 엇인 거라. 경 헛 이젠. 스만이가 각시보고 허는  
말이

“나 사농허레 나가크메 상물(香-) 숭아놓고 허여근에게, 메 삼끼 지어  
놓고, 저레 찬 물 올리고 허영 허헛.”

헛. 문전드레 출렁 난. 이제 문딱 절 허영. 사농을 나간 거 아니. 사농을  
나간 그날 밤인 간, 동더레도 팡허게 쏘아도 헛총질만, 서더레 팡팡 쏘아  
도 헛총질만 허여내언. 눈은 그냥 붕이대작<sup>12)</sup>으로 와 가고, 동서남북더레  
총을 쏘아도 무신거 물건은 하나 못 허고. 아이고, 그대로 집이 들어 올  
수가 엇인 거라. 그 머리 쫄른 돈 앓아 강은에 총 상 완 뒤 헛부난. 이젠  
그때엔 그 산에 굴 쏘굽이 잇이난 굴 속에 들어간. 모닥불을 피워 앓안.  
영 그 불을 찻는게 바싹 언 디 텡기단 모닥불 잇인디 간 쫄이난, 소로록  
허게 즐아운 거라<sup>13)</sup>. 경 허연 눈 영 허연 즐아가난

“스만아, 스만아.”

허멍. 막 스만일 불르는 소리가 나.

“아이고, 이거 어디서 불렀인고.”

번쩍허게<sup>14)</sup> 깨 난 거라. 깨 나난.

“스만아, 스만아 나도 너처럼 사농을 좋아허영 텡기단 사롬인디. 텡기  
단 이 산천에서 죽언 백골이 뛴언. 백년 데굴이<sup>15)</sup>가 뛴단 보난. 베고프고,

9) 쌀 받아오렌: 쌀 받아오라고.

10) 오고생이: 물건을 본디 그대로 고스란히 가지고 있는 모양.

11) 어이척량: 어처구니가

12) 붕이대작: 눈 송이가 크고 많이 쌓인 모습

13) 즐아운 거라: 즐린 거라.

14) 번쩍허게: 번쩍하게.

시장하고, 얻어먹을 디 엇언. 이제 스만이 그디 사농 왓단<sup>16)</sup> 굴속에 잇젠 허난 좃안 오고렌.”

허난.

“게난, 뭇 때문에 날 좃았수젠<sup>17)</sup>?”

허난.

“경 말앙. 나를 너네 집이 안고팡에 강 몸 모욕 시경 모상. 츠흐를 브름을 헤여주면 너 먹을 연도 내와주고, 입을 연도 내와 부제팔명(富者八命) 시겨주키여.”

헨.

“경 허우겐.”

경 허연. 거 좃아 앓언 그 굴 예염<sup>18)</sup>으로 쑥 텅기단 보난, 그게 백년 데굴이가 잇인 거라. 그거 좃아 앓언. 이젠 집더레 오멍 저 올레에 먹구슬낭 걸어정 잇이난. 츠마 각시신딘 들렁가진 못허고 그 먹구슬낭 우이 간 걸어 두언에. 집이 완 부인신디 사실 야카야카허고 허연 백년 데굴이 봉강<sup>19)</sup> 오고렌 허난. 이놈이 어른아, 저놈이 어른아, 쓸데기엇인<sup>20)</sup> 것만 막 허영 텅겸덴<sup>21)</sup> 막 허영. 간 보난, 오꼳 백년 데굴인 알더레 털어진거라게. 먹구슬낭에서. 털어정 막 데같이 올려부난, 우리 여름웨민 먹구슬낭 아래 간 누민 막 머리가 아픈덴. 그 범지범이 잇고. 그거 앓안 집이 들어간에 각시한티 굴으난에 각시는 막 봉당봉당 허난. 아무소리도 허지 말앙 그런 거 허민 부정 탕 아니웨난 그런거 허지 말아근에게, 이걸 저리 올리렌. 경 헨. 몸모욕 시기고, 상물 솟앙 허고. 게난 이제 백년 데굴이 허는 말이

“날 초흐루 보름<sup>22)</sup> 허영 잘 위허민 널 먹을 연도 내세와주고, 입을 연도 내세와주고, 부제팔명(富者八命) 시겨주키여.”

허난. 이제 그거 허영 몸모욕 시기고, 고팡(庫房)에 달앙 메연<sup>23)</sup> 그 우터레<sup>24)</sup> 놓고, 물 떠 놓고 경 허연. 이제 초흐루 보름을 허는 게. 아난게 아나라 사농<sup>25)</sup>을 가민 동으로도 팡 허민 대각록(大角鹿)이여, 서으로도 팡

15) 백년 데굴이: 백년 해골(骸骨)이.

16) 사농 왓단: 사냥 왔다가.

17) 좃았수젠: 찾고 있습니까.

18) 예염: 길이나 담장의 옆.

19) 봉강: 주워서.

20) 쓸데기엇인: 쓸데없는.

21) 텅겸덴: 다니고 있다고.

22) 초흐루 보름: 초하루 보름.

23) 달앙 메연: 달아 메여서.

24) 우터레: 위에.

25) 사농: 사냥.

허민 소각록(小角鹿)이여. 노루, 사슴이여. 꿩 사농이여, 매 사농이여. 엄청 허는 거라. 게난 막 가족은 벳경 이제 풀고, 궤기광 슬<sup>26)</sup>은 지네<sup>27)</sup> 먹고, 경 허명 이젠 막 부제(富者)가 돼난. 흐를은 사농허레 스만이 나가부난에 저승서, 멩질<sup>28)</sup>이 돌아오난. 강 조상들<sup>29)</sup>라, 멩질을 먹영오렌 보낸 놈두난. 다른 영가(靈駕)들은 다 가는디 스만이네 하르방, 할망 일가 쁘당<sup>29)</sup>들은 저승 막문에들 2만히 앓은 거라. 게난 초공문에들 다 앓으난 어떻허난 염라왕이

“어떻허난 이승엘 안 값이니? 식계<sup>30)</sup> 멩질 먹으레 안 값이닌?”

허난.

“우린 가도 식계 멩질 헤 주는 사름도 엇고.”

“아들 엇이넨?”

허난.

“아들 잇우덴. 지금 백년 데굴을 봉가당 뉘, 그것에만 이제 위허명 우린 위헤주질 안했젠.”

경 골안. 허거니 이젠 스만이는, 스만이 각시는 집이 앓앙 불노렌. 백년 데굴이가 땡땡땡 땡구르르허멍

“스만아, 스만아 나는 살꼭, 너는 죽어불민 무엇을 허느냐. 느 엇어불민 나도 나 놓아난 곳으로 데려다 주렌.”

하도 웨여온다<sup>31)</sup>, 웨여간다 헤 가난. 그때엔 이젠 스만이 부인은 정지에 서 불 숲단 부짓덩이에 불 별경 현 거 앓이난<sup>32)</sup>

“이놈이 조상 우리 집이 와네 초흐루 보름허멍 잘 먹어가난 베야지<sup>33)</sup> 불영 뉘헬덴.”

경 허연. 백년 데굴이가 땡땡 땡구르르르허멍

“너는 죽고, 나는 살면 무엇을 허것느냐. 이제 저승서 염라왕이 명령을 내려완 삼체스(三差使)가 널 데리레 앓젠. 부모조상 식계 멩질 안 헤부난. 경 현 데리레 앓젠.”

하도 헤가난. 부지땡이<sup>34)</sup> 앓안 눈갈이 궤영 뒷뵈디레 혹 데껴부난. 이젠

26) 궤기광 슬: 고기와 살.

27) 지네: 자기네.

28) 멩질: 명질.

29) 쁘당: 친척.

30) 식계: 제사.

31) 웨여온다: 소리친다.

32) 별경 현 거 앓이난: 빨강 한 것 가지니.

33) 베야지: 배(腹)의 낮은말.

34) 부지땡이: 부지깽이.

스만인 어디 땡기단 완 저녁을 먹젠 앓으난 뒷밭디서 땡그르르 땡그르르 허멍

“스만아, 스만아, 스만아.”

하도 허는 거라.

“아이고, 이거 어떻게 일이고.”

허난 각시가

“배아지사 불어신디사. 우리집이 완 잘 먹고 잘 살아가난, 하도, 노망사 험신지, 하도 ‘땡그르르 땡그르르’ 헤가난 저 밧디더레 데껴불엇우다<sup>35)</sup>.”

허연. 이제 그디 간 보난 백년 데굴이에서

“스만아, 스만아 너는 죽고 나는 살면 무엇을 허것느냐.”

경 하도 헤 가난.

“게른 조상님아, 어떻게민 나 명(命)과 복(福)을 잇입네까?”

허난. 빨리 흐저 출령<sup>36)</sup> 집안으로랑 저 대통기<sup>37)</sup> 시킨 거 낱. 이제 큰곳을 허고, 베깃딜로랑 가결랑 산으로 가근앵에. 어디 고요현 딜로 강 팽풍<sup>38)</sup> 쳐 놓고, 축지랑 스만이앵 써 놓고. 신도 세 개, 물도 세 개, 쓸도 세 개 경 허연 떠 놔근에. 이제 빨리 액을 막아야켄. 저승서 삼체스(三差使)가 들려오람덴. 경 허난 이젠.

“아이고, 이 노릇을 어떻게민 좋고.”

허연. 빨리 가속한티<sup>39)</sup> 곁안. 집이선 대 싱건 이젠 곳을 시작허연 허고, 또 질레론<sup>40)</sup> 테역단풍<sup>41)</sup> 조은 딜로<sup>42)</sup> 간, 출령 간에, 초석 폐와 놓고 허연. 물도 세 그릇, 쓸도 세 그릇, 돈도 세 개, 신도 세 개 모든 것을 세 개씩 허여 낱. 이제 멀리 옆데헨<sup>43)</sup> 잇이난 삼체스(三差使)가 내려산거라. 내려사난 배(腹)고팡<sup>44)</sup> 죽어지켄 밥을 후려 쳐먹고, 흐 체스(差使)는 왕래노숙(往來路宿) 엇텐허연 돈을 앓안 담고, 흐 체스(差使)는 이제 옷도 다 떨어지언 신발 다 헐고 허난. 신발을 신으켄 허연 신발을 신고허연. 아이

35) 데껴불엇우다: 던져버렸습니다.

36) 흐저 출령: 빨리 차려서.

37) 대통기: 큰곳 할 때 마당에 세우는 큰대에 달아매는 기.

38) 팽풍: 병풍.

39) 가속한티: 딸린 식구에게.

40) 질레론: 길엔.

41) 테역단풍: 잔디.

42) 조은 딜로: 좋은 곳으로.

43) 옆데헨: 옆드려서.

44) 배(腹)고팡: 배고파서.

고, 이거 누계사 이거 놓아신디사 한번 펑풍더레, 누계 이름이나 축지방을  
흔번 보켄 보난. 스만이엔 허영 딱 써져서

“아이고, 이거 스만이, 우리가 잡으레 왓인디 스만이거 앗안 가민 웨  
랴.”

이젠 그거 문서를 내여놓안. 삼십(三十)이엔 쓴 거를 삼천(三千)으로 강  
고쳐분 거라. 글자를 우에 새 흔 마리<sup>45)</sup> 앗언. 경 천자(千字)로 고쳐부난  
저승선 염레왕(閻羅王)이 암만해도<sup>46)</sup> 이젠 누구를 안 들양오는 거라, 스만  
이름. 경 말양 검은 숫, 내가 내여주크메 앗양 강 싯찌근에게<sup>47)</sup> 흰 숫을  
멘들양 오렌 허난에. 그걸 앗양 주천강 연훼못디 간. 검은 숫을 히(白)게  
싯켄 저 글체<sup>48)</sup> 담양 왕글랑 왕글랑 헛이난에 동방색인 넘어가단

“거 뭐허는 짓이고?”

허난.

“아이고, 모르는 소리 맵서. 우리 아버지 중병 들언 생전 좋질 안허난,  
이거 허영 딸렁 검은 숫을 히(白)게 싯찌당 딸렁 먹으민 좋은덴 허난 딸  
렸우다.”

“양, 으마<sup>49)</sup> 삼천(三千) 년을 살아도 그런말 못 들엇덴.”

경 골아부난

“아이고, 이거 스만으로구나.”

허연

“어서 가자. 바빠 가자.”

허연. 저승을 들양 간 거라. 그 스만이엔 축지방에 펑풍에 썩 붙지난 이  
젠 그걸 보안 흔저 글렌 허난

“아이고, 체스(差使)님네야. 여기서 날 데령갈게 아니고 우리 집으로  
강, 게도 우리 마누라 신디라도 가노렌 행 가쿠덴.”

“게, 어서 글렌.”

집인 간 보난 큰대(大竹) 세와놓고 상버리줄 메어놓고 막 이제 곳을 허  
는 거라. 경 허난 마침 방액(防厄) 때가 된 거라. 다라에 쓸 하나 거려논  
고, 초신 삼베 놓고 경 허연. 막 황쇄<sup>50)</sup> 데령허고 허연 액(厄)을 막았이난,  
삼체스(三差使)가 그 액(厄)을 받안, 그걸 받아앗언 저승을 간. 저승가난

45) 흔 마리: 한 마리.

46) 암만해도: 아무리 해도.

47) 싯찌근에게: 싯어서.

48) 글체: 삼태기.

49) 으마: 놀랐을 때 ‘아아, 어마’ 따위의 소리와 같은 뜻을 나타내는 말.

50) 황쇄: 노란 숫소를 일컬음.

염례왕(閻邏王)이

“스만이 안 들앙 왓이넨?”

허난. 벌써 스만이 데리레 간 삼체스(三差使)가 뇌물을 받아먹으난. 완에 삼십(三十), 열십자에 새 흰 마릴 앓언 천자(千字)를 만들어분 거라. 문서 지기한티 돈 벌어온 거 흐뎡<sup>51)</sup> 쥐된. 경 허난 이젠 경 허민. 문서 앓앙 와 보렌. 염라대왕이 문서 앓앙 와보난

“아이고, 염례왕(閻邏王)님아 큰일날 뻔 헛습네다. 삼천(三千)이엔 현 결 삼십(三十)으로 알앙 우리가 강 들앙 와불민 어떻게될꺼.”

“경 허민 너네 건 잘허고, 강 동방색이 삼천(三千) 년 잡앙오렌.”

허난. 그 검은 솟을 히(白)게 씻젠 골체에 담안 씻없이난.

“난, 동박색이 삼천(三千) 년 살아도 검은솟 씻어 히(白)게 된덴 허는 말은 아니 들엇젠.”

허난.

“아이고, 이게 동방색이로구나. 어서 가자. 바빠 가자.”

허연. 게난, 현다 현 삼척동자도, 이제 삼척동자 곁은 동방색이도 저승 체스(差使)님한테 들민 이제 당해내지 못허고 가야만 허는 길이고, 그것이 법. 이것이 이제 사만이 본입니다. 이 분은 사농해난 집이, 사농해난 집이 가문<sup>52)</sup> 푸는 분.

---

51) 흐뎡: 조금.

52) 가문: 가면.